



양림동 5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박정용씨의 작품 'In here there is'는 수많은 지식인과 예술가를 배출한 양림동을 가리키고 있다.

선교사·문인·화가 미술작품으로 재탄생

남구, 예술거리 조성 ‘버들 숲 양림’ 사업



캘리그래피 이진경씨가 디자인한 가게 간판.



이이남·김태군씨의 작품 ‘최후의 만찬-양림’.

‘양림동을 걸어보자.’

근현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양림동에 최근 마을의 역사가 녹아 있는 미술작품들이 놓였다. 건물과 골목 구석구석에 들어선 미술작품들은 ‘100년’이 공존하는 양림동을 문화 마을로 꾸몄다.

최근 찾아간 양림동은 아기자기하게 변해 있었다. 양림동 광주은행 사거리 인근 소담떡방 앞에서 시작도서관까지 200m 구간에 설치된 작품들은 둘러보는 발걸음을 한층 가볍게 했다. 선교사들의 흔적과 문인, 화가 등 예술인들의 모습이 담긴 작품들, 알록달록하게 단장한 오래된 가게의 간판들은 양림동이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말해줬다.

김태군·박정용·백규석·신철호·이이남·이진경·정운하·조대원씨 등 중견 작가 8명과 김명우·김영일·김혁·서영기·성혜림·염기준·이승일·이조흠·임현채·홍원철씨 등 청년 작가 10명은 저마다 인상 깊었던 양림동의 스토리를 찾아 미술작품을 설치했다.

소담떡방 옆에 방치돼 있던 옛 목욕탕 건물 벽면에는 양림동을 대표하는 김현승, 박재구, 이수복 등 사인의 시구와 양림동 출신 정윤성이 작곡한 곡의 가사 등이 이진경씨의 손 글씨로 써졌다. ‘무수한 사람 무수한 심장’, ‘1937년 9월11일 17시40분 스탈린’ 등 문구와 성혜림씨가 그린 광주YWCA 창립자 김필래 여사 초상이 인상적이다.

시작도서관 방면으로 올라가다가 보면 왼쪽 편 5층 건물 옥상에 설치된 박정용씨의 작품 ‘In here there is’가 눈길을 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성인 3배 크기의 노란색 조형물이 이장우·최승호 가옥과 양림산 등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또 고풍스러운 기독간호대 건물과 양림교회, 옛 한옥들이 즐비한 양림동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강의 중간에는 이승일씨가 주차금지판 뒷면에 양림동의 느낌을 담아 그린 캘리그래피와 이미지를 만날 수 있다.

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아기자기한 가게 간판들이 눈에 들어온다. ‘하얀 세탁소’, ‘왕 돈까스’, ‘그레이스 서점’, ‘뽕 스네’ 등 간판은 이진경씨의 솜씨다. 단순한 듯하면서도 정겨운 이미지를 풍기는 간판들이다.

홍원철씨의 ‘양림동 종견의자’와 백규석씨의 ‘양림동 종견전화도’ 작품 앞에서는 잠시 앉아 쉬어갔다.

양림동 종견은 팔도 관찰사로 평양에 있던 정만중과 광주에 살던 그의 아들 정엄 사이를 오가며 서신을 전달한 일화로 유명하다.

특히 한양으로 삼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던 중 새끼를 낳게 되고, 주인이 살고 있던 이곳까지 새끼를 나른 후 탈진해 생을 마감한 스토리가 백규석씨 작품에 녹아 있다.

반대편에는 정운하씨의 미디어아트 작품 ‘지혜의 빛 : 양림을 담다’가 설치돼 있다. 밤이면 LED 불빛으로 반짝이는 이 작품에는 양림동 인물들이 담겨 있다.

다정다방 인근에서는 이이남·김태군씨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최후의 만찬’의 이미지를 빌려 만든 조각작품 ‘최후의 만찬-양림’이 설치돼 있다. 예수와 함께 우월존, 조아라, 유진벨, 서서평, 오현 등이 만찬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밤에는 은은한 조명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낸다.

한편 광주시 남구는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받아 ‘작가참여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버들 숲 양림’을 추진했다. 모두 1억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번 사업은 남구문화원이 진행하고 (주)아트주가 사업을 수행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음악교실 가고

광주박물관, 내일 ‘탱글’ 초청 콘서트

국립광주박물관은 26일 오후 4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문화북덕방 탱글’을 초청해 ‘탱글탱글의 음악교실’을 주제로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1교시에는 ‘백조의 호수’, ‘사랑의 인사’ 등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사하고, 2교시에는 ‘오즈의 마법사’ OST ‘Over The Rainbow’ 등 친근한 팝송을 주제로 음악교실이 진행된다. 3교시에는 관객과 함께 카혼(타악기)을 배워보면서 율동과 함께 흥겨운 동요를 부르고, 4교시에는 애니메이션과 함께 보고 듣는 알레그로 공연이 준비돼 있다. 또 휴식 시간마다 반장 선거 등 관객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3세 이상부터 입장가능하며 공연은 무료다. 당일 오후 3시40분까지 선착순 3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문의 062-570-7012. /김경민기자 kki@



연극학교 가고

토박이, 초등생 대상 8월부터

2014 토박이 신나는 어린이 연극학교가 열린다.

3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극단 토박이가 진행하는 연극학교는 올해 22번째를 맞는다.

강의는 창작, 시각, 후각 등 다양한 방식의 자극으로 사물을 새롭게 인지하는 ‘오감을 활짝 펼쳐라’, 단어 퍼즐 맞추기, 조각상 놀이를 통해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상상력 놀자’ 등으로 구성된다. 또 3개의 그림으로 즉흥극을 만드는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표현력 키우기’, 대본 읽기, 소품·의상 만들기 등을 통해 직접 작품을 만드는 ‘공연은 이렇게’도 포함돼 있다.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강의 기간은 8월1일부터 15일까지다. 강연장소는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토박이 전용 극장 민들레 소극장이다. 강의 마지막날인 15일에는 발표회도 갖는다. 수강료 12만원. 문의 062-222-6280. /김미은기자 mekim@

미술평론가 최열의 ‘이중섭’ 이야기

광주시립미술관 30일 인문학 강좌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 오는 30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미술평론가인 최열 인문학사학회를 초대해 ‘2014 상록인문학강좌 네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최 회장은 이날 강좌에서 ‘예술과 시대-이중섭과 그의 시대’를 주제로 이중섭의 시대상황에 따른 삶과 예술세계를 돌아본다.

이날 강좌에서는 이중섭의 작품인 ‘소’, ‘가족’ 등 연작을 통해 예술가의 삶과 이중섭의 저항미술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최 회장은 현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원, 미술평론가, 근대미술사학자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613-7100. /김경민기자 kki@

광주극장, 비엔날레 출품작 ‘논픽션 다이어리’ 상영

지존파 등 다뤄… 내일 정윤석 감독과의 대화

2012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이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지난 17일 개봉한 정윤석(사진) 감독의 ‘논픽션 다이어리’(Non-fiction Diary)는 2012광주비엔날레

출품을 위해 만들어진 영상작품을 보완해 만든 영화다.

다큐멘터리와 미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꾸준히 질문해온 정 감독은 지난 2012광주비엔날레 때 5전시실에



서 지존파 사건을 다룬 60분 분량의 영상 작품을 선보였다.

당시 정 감독은 “90년대 지존파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급격한 도시화에 휩싸인 한국 근현대사를 담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봉한 ‘논픽션 다이어리’는 이 영상 보완 작업을 거쳐 독립영

화로 재탄생했다.

지존파 살인 사건(1993~1994),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 붕괴(1995) 등 90년대 발생한 3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 특히 2014 베를린국제영화제 최우수아시아영화상, 2013 부산국제영화제 최우수다큐멘터리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극장에서는 26일 오후 3시10분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이벤트가 열린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www.daewontour.com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대원빌딩 1층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광주역 062)525-4835 광주송정역 062)941-3278

기차여행

후원 **KORAIL** 한국관광공사

8월 1일(금) 무박2일

정동진/월정사/휴휴암/주문진어시장 기차여행

시 간	일 정
20:00	광주역/광주송정역 출발
04:40	정동진역 도착후 정동진 일출
07:30	월정사/휴휴암/주문진어시장 관광
14:20	동해역 출발/추전역 정차후 인증샷
23:00	광주역/광주송정역 도착

성인 89,000 원~ 경로 87,000 원~ 소아 85,000 원~

8월 8일(금) 무박2일

정동진/추암촛대바위/환선동굴 기차여행

시 간	일 정
20:00	광주역 출발
04:40	정동진역 도착후 정동진 일출
07:30	추암촛대바위/환선동굴 관광
14:20	신기역 출발/추전역 정차후 인증샷
22:00	광주역 도착

성인 89,000 원~ 경로 87,000 원~ 소아 85,000 원~

추전역

한국에서 제일 높은데

비 높 855m